

#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대학휴학중 합격생의 합격수기

#대학생 및 휴학생#인터넷 강의#단원화#멘탈관리

##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보통 아침 8시에 공부시작해서 GS 2기때까지는 9시 30분까지, GS 3기 이후에는 10시 30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식사시간은 밥 먹고 산책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정도로 하되 1시간 30분은 넘지 않게끔 했고, 목요일, 일요일은 5시 30분까지만 공부하고 저녁타임은 쉬었습니다. 순공시간은 GS 2기때까지는 평균 10시간 내외, 3기때는 11시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계획은 이렇게 세웠으나 막상 공부하다가 멘탈이 너무 상하면 중간중간 하루씩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계획으로는 매일매일 양으로 해야할 분량을 정하기보다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1) 노동법 : 58.06점 공부할 당시 민사소송법 다음으로 가장 애착을 갖고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무사는 노동법을 못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노동법은 60점은 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시간투자도 많이 했던 과목인데 약간은 애매한 점수가 나와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 과목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유독 노동법에 숨은 교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공부법 - 노동법은 법학과목치고 뭔가 판례도 논거-기본입장-판단요소와 같이 뭔가 스토리 있는 느낌이어서 판례 문구암기에만 매몰되어 그 전체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노력했습니다.

- 노동법은 쟁점별로 배경이 되는 법조문이 무엇이고, 그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각기 다른 견해를 취했을 때 그 결과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통상 '문제의 소재'의 형태로 답안지에 녹여내게 되는데, 저는 시간부족등의 이유로 해당 쟁점에서 문

제의 소재는 생략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할 때 항상 판례를 떠올리기 이전에 문제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판례의 입장이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기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 포섭의 경우는 저도 GS3기때까지 감을 잡지 못해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결국 가장 많이들 추천하시고, 정석적인 방법인 ‘제시된 사실관계 모두 포섭하기’가 가장 고득점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필속도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여서 포섭에서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분명 포섭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실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안마다 결론과 직결되는 판단요소의 순서대로 포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근로자 A가 근로법상 근로자에 속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판단요소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실관계로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짐없이 다 포섭하기에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을 때에는 만약 문제에서 ‘A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는 B(사용자)가 정하고 A는 이에 따라야 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는 대놓고 판례가 제시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의 구속성’이란 요건에 걸리게 되니 이러한 확실한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남는다면 ‘이외에도 ~~~~같은 요소는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라고 보인다’와 같이 모두 포섭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2) 행정쟁송법 : 71.74점 어찌 보면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정쟁송법 양이 별로 많지 않다는 말을 듣고 계속 좀 미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가장 힘들게 힘들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생각치 못하게 71.74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게 되어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힘겹게 공부한 과목 덕분에 합격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1) 공부법 - 행정쟁송법은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나 최근 들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사례지문 속에서 얹혀 있는 쟁점들을 찾고 그에 맞는 일반론 현출 및 포섭이 관건인 과목입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읽고 사안의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지만 대상적격, 원고적격,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된 논의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사례문제만 보는 것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론에 대한 암기가 어느정도 완벽하게 되었다고 느낀 GS 3기 종강때까지는 사례문제보다는 기본서의 일반론 플랫폼 암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고(물론 사례문제를 아예 안

본 것은 아닙니다) 그 후 한달이 남은 시점에서 기타 판례들을 눈에만 한 번 발라서 익숙해진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만약 생전 처음 본 판례가 시험장에서 나온다면 시험장 현장에서의 상황대처로 해결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 저는 행정쟁송법에서도 두문자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만 행정쟁송에서는 노동법과 달리 문해판검 구조의 일반론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학설의 이름과 해당 학설의 핵심 논거인 키워드를 엮어서 두문자를 따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뭔가 판례의 입장이 좀 확실하게 A가 맞다 B가 맞다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좀 두루뭉술하다고 느끼셔서 ‘아니 도대체 그래서 판례의 입장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이런 판례를 보면 ‘그래서 판례는 위의 A,B,C설 중에 기본적으로는 A설의 입장이고, 다만 최근~~~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한 점들을 고려해서 ~~~로 판단한 바있구나’ 와 같이 좀 저만의 친숙한 문장으로 바꾸어서 접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 고득점의 원인분석 -사실 행정쟁송법이 인사관리 다음으로 취약과목이라고 생각했고 시험을 본 직후에도 그리 잘봤다는 느낌이 있던 것은 아니여서 71.74점이라는 나름의 고득점을 받고 적지 않게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합격수기 중에서도 특히나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많이 포함되어있으니 정말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중간중간 포섭이나 논리가 좀 빈약하긴 해도 결국 ‘답은 맞췄다’ 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2문의 피청구인 적격 문제나, 3문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문제는 개념을 조금만 잘못 알고 있어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에서도 일단 답이 틀리면 점수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맞냐 틀리냐, 적법하냐 부적법하냐의 문제는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암기도 암기지만 시험장에서의 순간 판단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쭉 읽고 판단해서 답을 먼저 머리 속으로 정하고 일반론 쓰고 포섭하고 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푸실 것 같은데 이러한 출제 기조라면 일반론에서의 내용손해나 포섭손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문제를 천천히 읽고 천천히 판단해서 답을 확실히 내는데에 시간을 충분히 갖으시는게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답이 틀리면 점수가 확 무너지니까요...

- 다음으로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2문의 ‘당사자소송의 전심절차’였는데 항고소송에서, 특히 필요적 전치주의하에서의 전심절차에 관한 문제는 그간 수도 없이 연습했으나 당사자소송에서의 전심절차는 정말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에 관한 문제를 본 적도 없었기에 ‘사실 乙이

제기한 소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인가?’ 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었고, 그냥 항고소송이라 치고 항고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외운걸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굴뚝같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봐도 정말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이 확실해서 법전을 뒤져보니 운 좋게도 당사자 소송의 준용규정에서 행정심판 전치 규정인 행소법 18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어 이것을 근거로 투박하게나마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처음 보는 쟁점이 나왔을 때 본인이 공부한 비슷한 내용으로 억지로 끼워맞추어 잘 쓴 틀린 답안을 작성하는 것 보다는 서투르고 처음 써보는 쟁점이라 무섭더라도 이 시험장의 모든 수험생이 다 그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전에 기반해서 투박하지만 맞는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답안작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인사관리 : 49.84 인사관리는 가장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핏도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과목이었는데 정말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55점정도는 나오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과거의 저 자신에게 찾아가 쌍욕을 해주고 싶네요... 열심히 가르쳐주신 강사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인사관리에 관해서는 감히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인사관리 실력자분들의 합격수기를 참고해주시는 편히 훨씬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10번, 100번 읽으면 외워지겠지? 라는 식의 공부는 지양해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절대 안 외워지더라구요.)

(4) 민사소송법 : 63.33점 공부할 때에도 가장 즐겁게 공부를 했었고 시험장에 나온 직후 느낌으로 가장 잘 봤다고 생각했던 과목입니다. 그만큼 성적도 어느정도 따라와줘서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과목입니다. 다만 올해 단문이었던 기일정지신청과 보충송달이 통상적으로 단문으로는 준비를 많이 안 하는 주제였던 만지라 시험장에서 머리에 흩어져있는 관련 정보들을 간신히 모아서 목차 구성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1) 공부방법 - 민사소송법에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법적효과는 완전 다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컨데피고경정과 피고표시정정,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등은 얼핏보면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효력

이나 요건은 전혀 달라 헛갈릴때마다 그때그때 확실히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개념들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는 주로 헛갈리는 개념들 몇 개를 정해두고 각각의 법적정의와 양자간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에서도 개념정의, 판례의 입장 등에서 두문자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단문의 목차에서도 두문자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예컨대 소송능력에 관한 단문 중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라는 대목차안에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 및 보정 4. 소송능력의 흠 이라는 중목차가 있고 소송능력의 흠이라는 중목차 안에 (1) 소제기 과정에서의 흠 (2) 소송계속중의 흠이 생긴경우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제한능력을 간과한 판결 이라는 소목차가 있다고 하면 유추조흠 제계다간 이런 식으로 입에 달라붙는 두문자를 따가면서 단문 목차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 기초 개념에 대한 암기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든 GS 2기가 끝날 때쯤 사례형 문제에서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김광수 변호사님의 사례집을 따로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풀어보고 그 이후로도 기본서를 위주로 학습하다가도 사례로 만약 나오면 어떤 구조로 풀어야 할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참고했습니다. 다만 바로 사례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집의 문제만 먼저보고 어떤 목차와 논리흐름으로 쓸 것인가를 혼자 떠올려보고 제가 생각한 목차와 사례집의 목차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빠뜨린 논리구조가 있다면 어째서 그런 논의를 하는하는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식으로 사례집을 활용했습니다

2) 강사님 특징 : 김광수 변호사님 - 1차시험 민법때부터 GS 0기, 2기, 3기까지 쭉 ; 김광수변호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광수변호사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례문제의 풀이방법이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이나 행정쟁송과목은 보통 대목차 2, 3정도에서 사안과 관련된 일반론을 쭉 소개하고 대목차 4에서 사안의 포섭을 하는, 이른바 ‘끝포섭’의 형식으로 답안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김광수 변호사님은 노동법이나 행정과는 다른 민사소송법의 특징을 고려하셔서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문제들을 대목차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중간포섭’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가르쳐주십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노동법이나 행정쟁송과 답안구성의 형식이 달라서 좀 헛갈리고 감을 잡지 못하였는데 조금만 연습하니 민사소송법은 하나의 문제에 선결문제가 2개,3개씩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르쳐 주신 ‘중간포섭’의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끝포섭의 방식만 고집하다보면 왜 이러한 일반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갑자기 이걸 왜...?’의 상황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김광수변호사님의 답안작성방법을 체화시키고 나니 물음에 따라 논리적이고 탄탄한 답안작성이 점차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사례형 문제였던 1문의 점수

가 114점으로 비교적 잘 나왔는데 아마 이러한 답안형식을 채점위원분들께서 좋게 봐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 면접 준비 과정

우선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특성상 3차 면접시험의 부담은 공무원시험등에서의 면접에 비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합격하신 선배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마라 어차피 다 붙는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나 저는 그래도 혹여나 '불합격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 한명이 내가되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른 합격생에 비해서는 면접준비에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노무사가 되고싶은 이유, 어던 노무사가 되고싶은지 등과 같은 A급 질문들을 10개정도 생각해보고, 각 질문에 대하여 어떤 스토리라인을 갖고 이야기를 할지 구조를 잡고, 핵심 키워드는 암기하려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때 공부했던 노동법 단권화교재를 4일에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험 전까지 총 3번은 돌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세세한 판례의 판단요소를 다 외우기보다는 판례의 결론, 즉 핵심 문장을 위주로 이해하고, 판단요소들은 눈에만 한번 바르고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저는 시험을 두 달 앞둔 7 월초 쯤에 슬럼프가 한 번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7 월에는 이정도는 되어있겠지'라는 선이 있었는데 제 실력이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느낄때마다 정말 '이렇게 몇 년 해도 과연될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되나?'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밀려왔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3 시간짜리 '기분환기용 프로토콜'을 정해두고 양심의 가책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서(가수 윤하님의 희망적인 노래를 즐겨들었습니다) 한시간 반정도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개운하게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어느정도 풀렸다 싶으면 다시 독서실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마음이 참 단순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땀 흘릴때까지 걸으면 걱정들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사라지게 되니깐 이 글을 보시는 예비 노무사분들께서도 한번 제 방법을 활용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시험에 최종합격을 한 이후 제가 뛰어난 머리가 없음에도 1년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 기간에 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제가 판단 하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생활습관등을 믿고 고집있게 밀고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을 하다보면 다른 수험자들의 공부방식, 보는 책등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에 너무 휘둘리면 결국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만하고 막상 효율적인 학습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모의고사에 대한 철저한 복기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본 후 강사님께서 배포하시는 예시답안을 보기 전에 독서실에서 혼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해야할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시험을 보고나면 곧바로 답안을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것을 잠깐만 참고 스스로 모의고사를 복기해보는 시간이 매우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